



이환주 남원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친절직원 11명을 격려하고 있다.

남원시, 시민칭찬 ‘친절직원’ 11명 선정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어가고 있는 남원시에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

시 홈페이지와 문자, 편지를 통해 공무원들의 친절한 자세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칭찬하는 시민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남원시는 3일 오전 시장실에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친절직원 11명을 격려하고, 기념품으로 소정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남원시 홈페이지에는 “민원인을 밝게 맞아주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모

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한 걸음에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등 칭찬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환주 시장의 핸드폰이나 편지로 직접 친절공무원을 칭찬하는 문자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시민에게 마음으로 다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감 있는 행동으로 칭찬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하여, 시 전체에 친절분위기를 고취시켜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봉채영 기자

무안군, 계약심사·감사로 예산 12억 절감

전남 무안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과 7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산정과 품질확보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1/4분기 동안 대형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업 등 총 56건에 대해 수량과다 산정, 시공방법 변경,

단가 및 요율 착오 적용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실거래가격 미적용, 설계도서의 단산오류, 인건비 계상오류 등 잘못 처리된 사항 등에 대하여 바로잡아 3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품질향상과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평택 포승지구에 싱가포르 물류센터 건립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29일 싱가포르 냉장 청과물 수입물류회사인 S사와 경기도시공공간에 부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진출한 S사는 평택항을 통해 청과물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평택 포승(BIX)지구 2만8256㎡(8547평) 부지에 냉장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S사의 이번 투자로 6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냉장 청과물의 분류, 포장 등에 인근 지역내 일일 최대 100여명의 일손을 필요로 하게 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청 관계자는 작년 1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1년여에 걸쳐 실무협의 및 윈스톱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10월 가계약을 거쳐 올해 3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오늘의 날씨

4월 4일 (목)
음력: 2월 29일

수도권 날씨
4-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4 | 해질 / 18:57

연천 0/17, 동두천 1/17, 가평 -2/17, 파주 -1/16, 서울 4/16, 양평 -2/17, 인천 6/14, 수원 3/16, 용인 3/16, 평택 0/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교육청, 인권보호팀 신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 장학관·변호사 등 7명 배치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구제 조치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

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에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 내에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학생인권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팀에는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2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돼 각종 인권침해와 관련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사안조사 및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팀 신설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치료를 심리상담

답이 필요한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과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 소통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진주 택시요금 2800원 → 3300원 인상

6년만에... 11일 새벽 4시 부터 거리요금 133m당 100원으로

진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일 새벽 4시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진주시는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0m 줄어든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의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했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추어 정촌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을 해체 조정하고, 관내 모든 택시에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요금민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촌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쇼핑몰, 산단조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복합할증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끈이질 않았다. 이번 복

합할증지역 해체로 거주 시민 뿐 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의 1701대 모든 택시에 할증요금 자동인식 장비를 설치한다. 진주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상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제로 인하여 할증지역 운행시 택시미터기 수동 조작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요금시비 민원이 발생해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운수종사자 수동조작에서 GPS 자동인식장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 7000여 만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이용객과 운전자 간의 요금 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주=신용민 기자 sbegood@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19구조대원 60여 명을 선발해 여름 피서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수난구조훈련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권역별 소방서 구조대원 60여 명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3개 조로 나뉘 3일씩 이뤄진다.



전남소방 수난구조훈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수영 및 수중구조훈련 ▲잠수장비

활용 구조기술 등 다양한 현장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체험훈련으로 진행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익산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 사업 선정

연구용역비 5천만원 지원받아 먹거리 생산·유통 등 실태조사

익산시가 농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응시한 31곳 기초·광역자치단체 중 22곳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상’ 등급을 받아 선도지자체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토대로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지역 먹거리 이슈를 분석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푸드플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생산기반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

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종합전략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주말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지역 푸드플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봉채영 기자